

세계기도정보

[나이지리아] 북부 기독교 학교, 라마단 기간 동안 강제 폐쇄
 [미얀마] 미얀마 라카인주 차우크푸, 전투 격화로 2만 명 이상 피난
 [아프가니스탄] 디지털 성경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시장에 전해진 희망
 [니카라과] 유엔 인권이사회 탈퇴...종교·시민 탄압 논란
 [네팔] “공화제로 혼란·부패 심화”...네팔서 왕정복고 요구 시위
 [콜롬비아] 무장단체의 기독교 청소년 강제 징집 심각...거부하면 치명적인 보복 당해
 [아르헨티나] 폭우 사망자 10명으로 증가...“강우량 역대 3번째”
 [태국] 몬타냐드 기독교 난민 60여 명 체포·위구르족 40명 중국 강제 송환 논란
 [인도네시아] 초중고에서 종교 교육 담당할 기독교인 교사 부족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영국인 부부 포함 외국인 4명 구금
 [이집트] 이슬람, 기독교인 여성 강제 개종 위해 새 전술
 [아이티] 갱단의 30% 어린이... 어린이 성폭력 1000% 급증

선교후원

현황

- ▶ 파 송 윤천석, 황나미(멕시코)
- ▶ 후 원 천준상(이숙영)-캄보디아, 김병렬(이미진)-말레이시아
 윤상혁(김나래)-인도네시아, 김상홍(조지현)-말레이시아
 우진호(김지현)-베트남, 윤요한(서사랑)-인도네시아,
 허수성(허인영)-태국
- ▶ 개척교회 부르심의교회(정연우목사), 경남교회(한덕숙전도사),
 물댄동산교회(김일석목사), 행복교회(정용수목사)
 보물상자, 어린이전도협회
- ▶ 기 관 해피가정사역연구소(서상복소장), 남부산동노회자립위원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이단대책), 위컴스, 어린이전도협회(서
 부산), 셀네트워크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행복한교회

담임목사 **김 성 철**
 47506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70번길 76
 T. 051-504-1128 F.051-504-1187



2025. 3
멕시코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행복한교회

하나님 나라!

윤천석, 황나미 선교사(멕시코/파송)

교회의 담장을 너머!

3월 13일 목요일, 코스타리카 방문을 끝으로 멕시코 집으로 귀임했다. 먼저 1월에 있었던 치아파스 교사 강습회 보고 영상을 한국어 버전과 스페인어 버전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멕시코 및 선교 지역교회와 한국 및 한인교회들이 이 일에 함께 참여하여 주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곳에도 함께 나누었다. 이 영상을 보고 이번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라이 자매가 나에게 몇 장의 사진과 함께 문자를 보내왔다: “사랑하는 형제님, 저희들은 지금 믿지 않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마치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굳은 마음을 가진 이 마을에서 선교사처럼 생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집중하며, 그들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회에 가는 것을 허락하여 주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이 나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3월 17일 월요일, 영상을 본 페루 장로교회 총회장인 알프레도 목사가 나에게 연락이 왔다: “목사님, 이곳 피차리를 중심으로 18개 노회가 어린이 사역을 위한 훈련을 받길 원합니다. 멕시코에서 한 것 같이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세요. 2주 전에 정글지역 노회들이 모여 어린이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습니다.” 해야 할 일도 그리고 오라는 곳도 많다. 그러나 나의 눈에는 추수할 일꾼이 없다. 하나님께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길 기도한다. 나의 눈에는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라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2월 21일 금요일, 교회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는 교회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나에게 메리다의 미겔 목사가 연락이 왔다. 4월 25~26일 양일간 1월 세미나에 참석한 미겔 목사 교회 교사들을 중심으로 치아파스와 메리다의 중간쯤에 위치한 챔포톤(Champoton)이라는 마을에서 1월에 배운 것을 가지고 현지 주일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 강습회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벌써 45명이 등록을 마쳤으며, 나에게 1월에 한국에서 가져온 교재들을 보내어 줄 수 있는지 묻는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며 섭리다. 나의 시간에 하나님을 맞추지 말자!

시작과 끝

3월 7일 월요일, 몇 년 만에 하비 목사를 만났다. 매일 큐티를 그와 나누는지라 그와의 만남이 먼 옛날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오랜만에 김 목사를 만난 그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와 지금 자신의 고민을 그에게 들려준다. 그는 여전히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볼 때 열매가 없다.

미국 선교사에 의해 미국 교회의 지원으로 시작된 예배당 건축 공사도 코로나 펜데믹 기간 멈추었다. 그리고 더 이상 예배당 건축에 진전이 없다. 그 사이 예배당 건축에 기쁨으로 함께 참여한 교인들도 조금씩 떠나갔다. 이제 하비 목사가 제자 훈련을 시켰던 형제들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는 쉬지 않고 전도했

다. 그러나 전도한 사람들은 다른 교회로 간다. 그런 모습을 보며 하비 목사는 자기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다.

그가 김 목사에게 말한다: “목사님, 한 날은 한 목사님이 오셔서, 왜 이렇게 있냐며 150여 명 정도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그때 하에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선교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사역할 때 하나님께 헌신된 한 명의 목사만 있어도 이곳에서 계속 가르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열명이 조금 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에게는 이들이 교회입니다. 그때 제가 그분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인근 목사들은 바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이메 선교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쿠바 목사들의 삶을 들으면 제가 너무 사치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저의 양들을 보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내가 설교가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마치 제가 길을 잃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확실한 것은 지금 열명 조금 넘게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쿠바 목회자들의 삶에 대한 나의 이야기를 듣고 한 번도 나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놀랐다. 그에게 말했다: “하비 목사님, 당신은 참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당신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비 목사님,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은 그 자체로 힘들고 또 의미가 있습니다. 타인의 고난을 나의 고난과 비교하며 하나님께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는 것은 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당신을 축복하실 겁니다.”

눈물 흘리는 하비 목사 옆에서 그의 아내 바네사가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 준다. 고난의 시간, 그렇게 철없어 보이던 그의 아내가 이제 사모가 되어 있었다.

하비 목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내내 나는 생각했다. 우리 목사들 중 2명의 목사가 예배당을 건축하거나 가지지 못하고 있다: 교통사고 이후 다시 선교지로 돌아와 세운 첫 번째 교회인 비라인 행복한 교회 그리고 이제 은퇴를 준비하며 선교사로서 마지막이 될 교회인 과달라하라 행복한 교회가 그것이다. 처음과 끝, 처음과 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에게 주시길 원하는 것일까? 몇일뒤 까를로스 목사에게 건축 경비가 얼마나 들지 견적을 내어 달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3월 기도제목:

1. 과달라하라 행복한 교회의 크리스 목사의 쿠바 방문(3월 25일부터 4월 5일) 기간 그의 출입을 지키시고,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2. 4월 25~26일 멕시코 챔포톤(Champoton)에서 현지인들에 의해 진행되는 현지 주일 학교 교사강습회가 은혜가운데 진행되어 어린이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이 그곳에 심기도록.
3. 함께 동역하는 모든 목회자들의 영육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위해.